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에 비끼 절세위인의 숭고한 세계

환희와 격정의 세찬 설레임, 사변적인 일이나 경사를 놓고 마냥 가슴 부풀며 터치는 격동된 심정의 분출이 바로 만세이다.

인류역사의 폐지들을 펼쳐보면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기원하여 사람들이 외친 만세도 있었고 전투와 전쟁에서 이긴 환희를 안고 인민과 군대가 부른 만세도 있었다. 또한 위인을 우리러 사람들이 터친 만세도 있었고 경축의 날을 맞아 울려 퍼진 만세도 있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역사의 갈피에도 평등자가 인민을 천양하여 인민 만세를 부른 때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지난 10일,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공화국의 전국비상방역총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로 뜻깊은 연설을 끝마치셨다.

총포성없는 전쟁이라고 칭하던 방역전쟁, 그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을 우리러 인민이 터쳐야 할 만세이건만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만세를 간외 높이 부르셨다.

그 힘찬 음성들 들으며 인민은 오열을 타르셨다. 《총포성없는 전쟁이라고 칭하던 방역전쟁, 그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을 우리러 인민이 터쳐야 할 만세이건만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만세를 간외 높이 부르셨다.》

《그이께서 최대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뜻깊은 회의에서 승리만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민 만세를 부르시어 그 위대한 성

파를 우리 인민모두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시었습니다.》

공화국인민들이 터치는 이 심장의 목소리들에는 자기들이 모시고 따르는 평등자가 어떤분이신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된 격정과 긍지, 행복감이 그대로 어려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웨치신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이 아홉 글자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짙게 새겨진 인민사랑의 크나큰 무게가 실려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계적 대우행방의 발생초기부터 초특급의 비상방역장비를 구축하고 완강히 견지하면서 2년나 평온을 유지해오던 우리 나라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되었다는 현실앞에 솔직히 심정은 착잡하였다. 그것은 나에게 목숨을 내걸고라도 무조건 지켜야 할 인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마음속 진정을 인민앞에 터놓으셨다.

목숨을 내걸고라도 무조건 지켜야 할 인민! 인민들은 뚫어오르는 격정속에 이 뜻깊은 말씀을 받아안으며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91일간의 잊을 수 없는 날들을 되새겨보았다.

이 기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려 원일 중요당회의들을 소집하시고 하나에서부터 열, 백, 천, 만가지에 이르는 대책들과 방도들을 직접 내놓으셨다. 명철한 방략들도 가르쳐주셨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 간고했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방역사업을 지도하시며 보아주시던 문건만

해도 무려 1 772건에 2만 2 956페이지가 넘는 이 사실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해볼수 있으며 알수가 있겠는가. 깊은 밤 평양시내의 약국들에도 몸소 나가시어 의약품공급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셨으며 가정에서 마련하신 의약품들을 전염병으로 앓고 있는 황해남도안의 인민들에게 보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신 친어버이사랑을 인민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잊을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평등과 불면불휴의 헌신,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해 간고했던 방역전쟁은 종식되고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다.

불과 석달전 공화국경내에 악성비루스가 류입전파되었다는 사실이 공표되었을 때 승리의 날이 이토록 빨리 오게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진할 줄 모르는 헌신과 사랑이 이러한 기적을 창출했건만 그이께서는 이 모든 승리의 성과를 고스란히 인민에게 안겨주시고 다함없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시었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인 주제 104(2015)년 10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연단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를 높이 부르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이번 당창건 일흔둘째주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연설하면서 마치

막에 조선로동당 만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조선인민 만세를 불렀다고 하시며 내가 왜 그렇게 하였는가 하겠는가. 깊은 밤 평양시내의 약국들에도 몸소 나가시어 의약품공급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셨으며 가정에서 마련하신 의약품들을 전염병으로 앓고 있는 황해남도안의 인민들에게 보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신 친어버이사랑을 인민은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잊을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평등과 불면불휴의 헌신,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해 간고했던 방역전쟁은 종식되고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다.

인민을 위해서는 한몸이 실사한 알의 모래알이 되어 길위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모진 시련의 생생한 길을 앞장서 헤쳐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만이 짙게 새겨져 있다.

하기에 전국비상방역총회의에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들으며 각국의 출판, 통신, 방송들은 이구동성으로 격찬의 목소리들을 높였다.

《김정은평등자의 연설은 인민으로 시작하여 인민으로 끝난 인민을 위한 연설이었다.》

이 행성의 정체가 되고 인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허나 그들중 어느 누가 이렇듯 인민에게 진하다 진한 사랑과 정을 쏟아부은적 있었는가.

불보다 더 뜨거운 자애로운 아버지의 그 사랑의 세계는 이 땅을 그처럼 짧은 기간에 비루스청결지역으로 만들었다.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은 모든 승리와 기적의 원천이다.

승리한 오늘에 더 위대할 래일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승리라는 이 말을 아껴야 하며 보다는 각성과 실천에 힘써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서 인민은 오늘의 승리를 더 큰 승리로 이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셨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위대한 은인이시다. 하기에 천만인민은 경애하는 그이만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목청껏 웨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세, 만만세!!!》

사랑의 투쟁영웅들의 91일

지난 8월 18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군의부분 전투원들을 만나시고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신데 이어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신 소식을 지금도 공화국인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 퍼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르신 인민 만세에는 바로 이렇듯 고결한 열사부부의 숭고한 뜻이 새겨져 있다.

인민을 위해서는 한몸이 실사한 알의 모래알이 되어 길위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모진 시련의 생생한 길을 앞장서 헤쳐시는 자애로운 아버지.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만이 짙게 새겨져 있다.

하기에 전국비상방역총회의에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들으며 각국의 출판, 통신, 방송들은 이구동성으로 격찬의 목소리들을 높였다.

《김정은평등자의 연설은 인민으로 시작하여 인민으로 끝난 인민을 위한 연설이었다.》

이 행성의 정체가 되고 인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허나 그들중 어느 누가 이렇듯 인민에게 진하다 진한 사랑과 정을 쏟아부은적 있었는가.

불보다 더 뜨거운 자애로운 아버지의 그 사랑의 세계는 이 땅을 그처럼 짧은 기간에 비루스청결지역으로 만들었다.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정은 모든 승리와 기적의 원천이다.

승리한 오늘에 더 위대할 래일의 승리를 위해 우리는 승리라는 이 말을 아껴야 하며 보다는 각성과 실천에 힘써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서 인민은 오늘의 승리를 더 큰 승리로 이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셨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 위대한 은인이시다. 하기에 천만인민은 경애하는 그이만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려는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목청껏 웨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세, 만만세!!!》

도 구부러드다는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24시간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고열로 신음하는 마지막 한 사람의 주민까지 찾아간 군인들, 그렇게 하루하루 긴장한 결사전을 벌여 방역전에서 승리를 안아왔건만 떠날 때에는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줄세라 주민들이 잠든 이른 새벽에 조용히 거리를 떠나갔다. 그래서 인민들은 인민군 군의부분 전투원들의 소행에 누구나 감동의 눈물을 금치 못한 것이다.

진정한 인민의 군대인 조선인민군의 고상한 정신도덕적기강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항일무장투쟁을 평등하시던 나날에 창조되고 오늘까지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

인민에 대한 열사부부의 정신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한 일에 언제나 앞장서도록 간곡히 가르치시고 이끌어주셨다.

군인들이 웨치는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에 인민이라는 단어를 더 새겨넣도록 하시어 인민군인들이 항상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심장마다에 간직하도록 하시었고 군인들이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는 보고를 받

은사기자 리 경 월



속대에 가까이 있어야 정이 두터워진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있으면 그만큼 정도 멀어진다는 말이 생겨나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에 대한 이 속담이나 격언을 무색케 하는 화폭을 나는 동대원구역 동신동의 약국앞에서 눈물겹게 목격하였다.

지난 14일 아침 약국앞으로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이른 새벽 군의부분 전투원들이 귀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갑자기 떠났다는 것이 너무도 믿어지지 않아 달려온 사람들이었다.

죽어갔지만 그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의 곁을 떠났게 아니랍니다.》

이 사산생의 그 말이 나의 가슴을 웅크렸다. 군인들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문득 집을 찾아와 구해온 약을 내놓던 땀범벅이 된 군인동무들의 모습이 정말 낯설었다.

《그들을 이제 어디로 가면 만날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리도 무정하게 떠날수 있는가...》

저저마다 터치는 군인들에 대한 감동깊은 이야기를 듣노라니 마치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곁에 있는듯이 화선군들의 모습이 어려웠다.

정장 당중앙이 안겨준 붉은 파견장을 심장에 품어안고 인민의 생명을 지켜 달려온 첫날부터 화선군들은 악성비루스와의 전쟁이 벌어진 90여일 한시도 인민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

있었으며 신병으로 당하는 고통을 애써 숨기고 인민을 찾아가던 길에서 순직한 그런 지휘관과 대원들도 있었다.

피를 나는 정, 숨결과도 같은 정, 자기 희생으로 꽃피운 정만큼 가장 진실하고 열렬하며 아름다운 정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으며 혈육보다 더 가까운 이런 정보보다 극진한 정을 또 어디서 찾을수 있단 말인가.

한쪽의 그림속에서 우리 군대가 함께 있고 통통약국에서 생명의 고고성을 터친 장룡홍이의 그 뜻깊은 이름속에 우리 군대의 이름이 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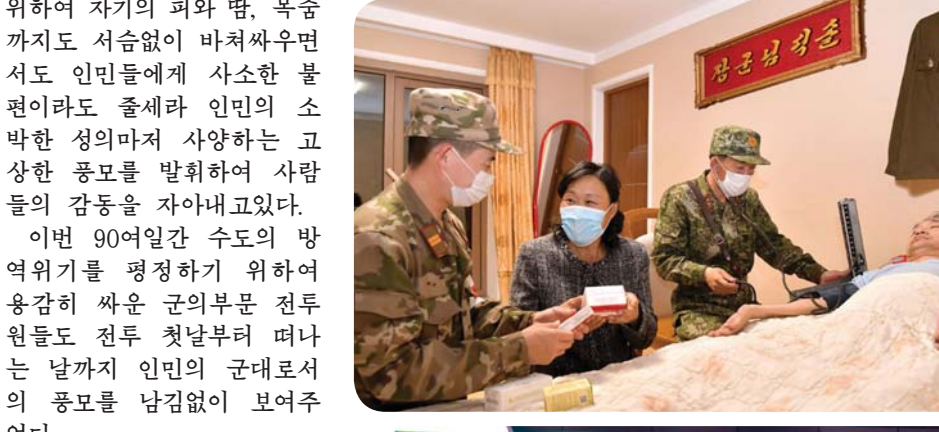
가까이 있어도 우리 군대이고 멀리 갔어도 멀어질수 없는 우리 군대이다.

나는 생각했다. 혹심한 자연의 광란으로 인민들이 보금자리를 잃었을 때에도 제일 먼저, 제일 가까이 인민들에게 달려온이들도 우리 원수님 보내주신 인민군대였고 사상초유의 대국민 최대방역위기가 들이닥쳤을 때에도 원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인민사수의 일상참호로 용약 달려온이들도 바로 인민군대가 아니던가.

송화거리에서 이어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과 린로 남새농장농장을 비롯한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꽃피워가는 그 전투들마다에도 다름 아닌 우리 인민군대가 있다.

비록 총련은 날아다니지 않았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비루스를 박멸하는 투쟁에 서슴없이 나서서 인민들을 수호한 우리 인민군대야말로 불비 쏟아지는 전화의 날에는 인민을 지켜 피와 목숨도 아깝없이 바칠 운명의 수호자였었다.

이런 군대와 저런 한순간 인민들 떨어질수 있으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다 해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과 군대가 함께 있다.



김대룡